



한국 남자축구가 새해 처음 발표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22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22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축구 국가대표 A매치 평가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에서 이강인이 슛을 하고 있다.

한국 남자축구 FIFA 랭킹 22위 유지

국제축구연맹, 2026년 첫 각국 순위 발표
아시아에선 일본 19위·이란 20위·한국 순
월드컵 같은조 멕시코 16위·남아공 60위

한국 남자축구가 새해 처음 발표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22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FIFA가 20일(한국시간) 발표한 세계랭킹에서 지난달과 같은 자리인 22위를 지켰다.

지난해 12월 22일 순위 발표 이후 A매치를 치르지 않아 랭킹 포

인트도 1599.45점 그대로였다. 한국은 지난해 10월부터 22위를 이어가고 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국가 중에서는 일본(19위), 이란(20위)에 이어 여전히 세 번째다. 일본은 지난달보다 한 계단 떨어졌고, 이란은 순위에 변동이 없었다.

오는 6월 개막하는 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우리나라와 맞붙을 멕시코는 한 계단 하락한 16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한 계단 오른 60위에 자리했다.

세계 정상급 국가들의 순위도 큰 변화는 없었다.

스페인이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킨 가운데 2~7위도 아르헨티나, 프랑스, 잉글랜드, 브라질, 포르투갈, 네덜란드 순으로 유지됐다.

다만, 최근 모로코에서 막을 내린 2025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성적

이 반영돼 아프리카 팀들의 순위가 요동쳤다.

특히 대회 우승국 세네갈은 7계단에 뛰어올라 역대 가장 높은 12위(종전 17위)가 됐다.

아프리카 국가 중 FIFA 랭킹이 가장 높은 모로코도 네이션스컵에서는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으나 3

계단이나 상승해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역시 모로코에는 역대 최고 순위다. 아울러 모로코는 1998년 4월(10위) 이후 처음으로 세계 톱10에 진입했다.

연합뉴스

피겨 차준환·신지아 등 올림픽 리허설 중국서 열리는 4대륙선수권대회 출전 컨디션 점검

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피겨 스케이팅 차준환(서울시청), 신지아(세화여고)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리허설 무대에 선다.

피겨 대표팀은 22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올림픽 프로그램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 남자 싱글엔 차준환, 김현경(고려대), 이재근(수리고), 여자 싱글엔 신지아, 이해인(고려대), 윤아선(수리고), 아이스 댄스엔 임해나·권예(경기일반) 조가 출전한다.

이재근과 윤아선을 제외하면 모두 다음달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다.

이들은 20일 베이징으로 떠나 대회에 참가한 뒤 26일 귀국하고, 이후 이탈리아로 출국해 다음 달 7일(한국시간) 개막하는 동계 올림픽에 나선다.

선수들은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성적보다는 프로그램과 컨디션 점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은 올림픽 프로그램을 최종 점검한다. 이번을 마지막 올림픽 무대라는 각오로 준비하는 차준환은 최고의 연기를 선사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 그



피겨 스케이팅 대표팀의 이해인(왼쪽부터), 신지아, 윤아선이 4대륙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리고 최근 '광인을 위한 발라드'가 자신의 연기 인생을 보여주기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했다.

올 시즌 시니어에 데뷔한 신지아는 체형 변화 문제로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노메달 부진에 시달렸으나 시즌 막판 경기력을 회복하면서 전체 1위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

했다.

이해인은 징계로 은퇴 갈림길에 섰으나 법적 싸움을 거쳐 올림픽 선발전 출전 기회를 잡은 뒤 2차 선발전 프리 스케이팅 마지막 경기에서 역전에 성공하며 김채연(경기도)과 상승경기연맹을 제치고 첫 올림픽 티켓을 거머쥐었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A매치 상대 오스트리아 확정
대한축구협회 “3월 유럽 원정경기로 치러져”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3월 A매치 주간 평가전 상대 중 한 팀이 오스트리아로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4월 1일 오전 3시45분 오스트리아와 원정평가전을 치른다”며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이 오스트리아와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20일 밝혔다.

경기는 현지 시간으로는 3월 31일 오후 8시45분 오스트리아 빈의 에른스트 하펠 슈타디온에서 개최된다.

독일 출신의 랄프 랑니크 감독이 지휘하는 오스트리아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24위로 한국(22위)보다 두 계단 낮다.

하지만 이번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 H조에서 루마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강호들을 제치고 5개 팀 중 조 1위로 본선에 직행하며 탄탄한 전력을 과시했다.

오스트리아의 월드컵 본선 진출은 1998 프랑스 대회 이래 28년 만이다.

이번 평가전은 홍명보호의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 상대인 유럽 플레이오프 D그룹 승자를 대비한 가상 모의고사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북중미 월드컵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D그룹 승자(덴마크, 체코, 북마케도니아, 아일랜드 중 한 팀)와 A조에서 32강 진출을 다룬다.

대표팀의 3월 유럽 원정 2연전 중 첫 경기 상대와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장명부 다큐멘터리 ‘현해탄의 낙엽’ 제작 1983년 KBO 불멸의 기록 ‘30승’ 투수의 삶 조명

지난 1983년 프로야구 초창기에 나온 불멸의 기록인 단일 시즌 30승의 투수 ‘너구리’ 장명부(1950~2005)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됐다.

일본 고베 신문은 최근 “한국계 일본인 투수 후쿠시 하로아키(한국 명 장명부)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장명부, 현해탄의 낙엽’이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영화제 출품을 앞뒀다”고 전했다.

영화를 연출한 이영곤 감독은 “7년 동안 취재해서 만든 작품”이라며 “제목은 사망한 장소에 ‘낙엽’은 가을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쓰여있던 것에 착안해 지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일동포인 장명부는 1969년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입단, 요미우리와 히로시마 등에서 15시즌 동안 91승 84패, 9세이브, 평균자책점 3.68을 기록한 뒤 1983년 국내 프로야구 삼미 슈퍼스타즈에 입단해 60경기에서 30승 16패, 6세이브, 220탈삼진, 평균자책점 2.36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적을 남겼다.



1983년 한국프로야구 역사를 썼던 삼미 슈퍼스타즈의 장명부.

그는 1986년까지 KBO리그에서 뛰다가 은퇴 후 삼성 라이온즈 인스트럭터, 롯데 자이언츠 투수 코치 등을 지냈고 1991년 마야 사범으로 구속되면서 국내 프로야구계에서 영구 제명됐다.

일본으로 돌아간 장명부는 2005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와카야마 현의 마자 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만 54세의 이른 나이였다.

연합뉴스

승 축 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봉진회

승 축 진 서기관



현계진

서기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례리 처가 일동

승 축 진 서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장)



김달호

서기관(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삼촌 일동

승 축 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처형동서일동